

한국문화적 심리치료 접근으로서의 심정치료(心情治療)

최상진 김기범

중앙대 심리학과

한국적인 상담 및 치료를 위해 본 연구자들은 심정상담과 심정치료 모델 개발을 시도하였다. 이는 한국인에게 발달해 있는 심정심리와 심정담론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심정상담이나 치료가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배경 속에는 마음의 문제에 초점을 둔 치료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심정의 문제는 자신의 심정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다. 따라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심정토로 그 자체로도 문제된 심정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심정 상담자나 심정치료자가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상처받은 심정이 어떤 것이며 그러한 심정이 어떤 사람과 어떤 사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일이다. 이러한 분석의 토대 위에서 치료 개입의 과정과 방법이 고안되면 다음과 정으로 심정담론의 양식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치료개입과정에 도입하는 일이다.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유교문화권에서는 인간관계 특히 가족, 가까운 친구, 상사와 부하직원 등에서와 같은 밀착 인간관계에서 불가분의 동단위 관계(unit relationship, 同單位) 당위성(canonicity)을 설정하고 이러한 동단위 관계성에서의 인간관계 윤리를 공공적 인간관계 윤리와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최상진, Yamaguchi, 김기범, 1998; 최석만, 1998). 유교의 기

본 정전인 삼강오륜(三綱：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 五倫：군신유의(君臣有義), 부자유친(父子有親), 부부유별(夫婦有別), 붕우유신(朋友有信), 장유유서(長幼有序))은 바로 이러한 동단위 인간관계 윤리의 성격을 동단위 관계의 형태(부자, 군신, 부부, 붕우, 장유 등)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교의 일차적 관심 지향은 동단위 인간관계 윤리를

규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교에서는 인간의 기본적 본성을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사단(四端)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를 사단의 실현에 두고 있다(금장태, 1998; 최봉영, 1997; 최석만, 1998; 홍승표, 1998).

이러한 사단이 구현되었을 때 이를 사덕(四德, Four Virtues)이라 하며, 사덕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인(仁)이다. 인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메타포되며 따라서 인의 핵심은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상대 마음의 공체험(共體驗)에서 꼽을 수 있다. 인을 필두로 한 사덕에 기초하여 동단위의 인간관계를 구현해 가는 세속적 형태를 흔히 정리(情理)라 부른다. 정리는 유교에서 가르치는 정전적 형태의 덕이 일반인의 현실 생활속에서 세속화, 변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근래에 IMF와 관련하여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서구인의 불신과 더불어 정실자본주의의 문제가 화두로 등장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유교문화의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유교의 본질 문제보다는 세속화, 변형화된 정리에서 비롯된 정실주의의 문제로 수렴될 수 있다. 정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리(事理)를 들 수 있다. 먼저 정리는 사람간 특히 동단위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간에 지켜야 할 윤리라 한다면 사리는 일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말한다. 동양의 유교문화권에서는 이 두 가지 이치가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자, 맹자를 비롯한 유학자들도 이러한 상충 상황에서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유학자들도 이에 대한 일관성 있는 해답은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상황에 따라 이 둘 중 어느 것을 우선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문화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관계주의 문화라 할 수 있는데(최상진, 1997a; Choi, 1998), 스트레스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들에서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인간관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김의철, 박영신, 1997; 최상진, 최인재, 김기범, 1999).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인간관계의 특성은 무엇이며, 그러한 인간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심정의 개념적 분석과 이를 상담 및 치료 차원에 도입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치료 기법이나 상담기법으로서의 심정상담 및 치료의 기능 및 의미를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인의 심정심리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개념인 심정(心情)은 정리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 기축적 기능을 하는 심리적 현상이며 개념이다. 심정이란 단어는 마음을 뜻하는 심(心)과 정서를 뜻하는 정(情)의 합성어로서 정은 '마음속에 있으며 마음으로 느껴진 정서'를 말한다(최상진, 1997b, 1999c; 최상진, 김기범, 1999c, 1999d; 최상진, 김정운, 1998; 최상진, 유승엽, 1996; Choi & Kim, 1999a, 1999b). 그러나 정이라는 말은 동시에 친밀한 인간관계 특히 한국인 인간관계의 기본지향인 '우리성' 인간관계(최상진, 1997a; Choi & Choi, 1994)에서 생기며 느껴지는 정적(正的) 관계성 정서(關係性 情緒, Gergen, 1994 참조)를 뜻하기도 한다. 이에 가까운 영어적 표현은 affection 또는 love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인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심정이 통하는 친구'라고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심정이란 말은 '상대가 자신

을 좋아하고, 자신에 대해 거리감이 없이 가깝게 느끼며, 상대가 자신을 자기처럼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안다는 것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최상진, 김기범, 1999c). 다시 말해, 한국인에게 있어 가까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좋아하는 마음, 무거리감, 아껴주는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마음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기정사실(take it for granted)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의 관계를 인간관계의 이상적 상태로 한국인은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마음으로 통하는 정의 인간관계에서는 상대에 대해 자신이 가진 정을 의식적으로 표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의식적 정표출 행동은 암묵적으로 심정이 통하는 친구 관계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을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상대가 인식할 때의 정은 마음이 통하는 정이 아니며 상대와 내가 하나가 된 밀착 우리성관계가 아님을 시사한다. '심정이 통하는 관계'라고 말할 때는 자신과 상대가 구태여 구분되지 않는 하나됨(oneness), 동질성(sameness)의 느낌 및 생각의 공유 속에서 서로 상대의 마음을 자기화(自己化)하는 상태에 이름을 뜻한다(최상진, 1997b)

그러나 심정이란 말은 보통 긍정적 맥락보다 부정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심정이 상했다', '심정이 뒤틀렸다' 또는 '억울한 심정', '쾌씸한 심정', '섭섭한 심정', '야속한 심정' 등과 같이 관여된 두 사람간의 관계에서 상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마음이 불편해진 상태를 지칭할 때 심정이란 말은 사용된다. 그러나 심정이란 말은 모든 형태의 인간관계에서 사용된다기 보다는 밀착된 우리성-정관계의 맥락에서 주로 사용된다. 예컨대,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

이 자신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심정이 상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통 '심정이 상했다' 라는 말보다는 '감정이 상했다' 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심정이 상했다'라는 말은 자신이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기대에 반하거나 자신의 기대에 못미치는 행동을 자신에게 할 때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질의 부정적 복합감정을 총칭해서 기술할 때 사용된다(최상진, 유승엽, 1996; 최상진, 김기범, 1999c).

한국인의 일상언어 속에서 '감정'이라는 말과 '심정'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맥락을 분석해 보면, 이 두 가지 형태의 감정이 어떻게 다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감정범주에 속하는 감정언어들은 주로 특정한 감정유발사건이나 대상 또는 상황에 대해 평가적 의미의 인지과 결들여 나타나는 감정상태를 지칭한다. 기쁨, 불쾌감, 질투 등이 이에 속하는 감정이다. 그러나 심정의 언어들은 '친밀한 인간관계'에 있는 '상대의 나에 대한 행동'이 기본적 전제조건이 된다. 이는 곧 '상대와 나와의 기존 관계에서 미루어 볼 때'가 일차적 기본 조건이 됨을 말한다. 다음으로는 상대의 나에 대한 어떤 행동이 상대와 나와의 관계에서 미루어 볼 때, '기대에 반하거나 못미친다' 거나 또는 '기대에 넘친다'는 자기 인식이 이차적 조건이 된다. 이때 전자의 경우는 앞에서 예시한 바와 같은 부정적 심정을, 후자의 경우는 '고마운 심정', '뿌듯한 심정', '황홀한 심정(한국 고대 소설 토끼전)' 등과 같은 긍정적 심정이 일어나게 된다(최상진, 김기범, 1999c, 1999d; Choi & Kim, 1999a).

세 번째 조건은 그러한 자기 인식과 더불어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조망이 관여된 '자기 관여적 감정'이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자기 관여적 심정은 보통 '불쌍한 내 신체', '서러운 내 신체' 등과 같은 표현으로 구사된다. 이와 같은 '자기

신세 조망적-자기 관여 감정'은 보통 사적으로 나타나고 자기 내적으로 체험되기 때문에 상대가 이를 알아채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같은 처지에 처해보지 않았던 사람은 상대의 그러한 심정을 알아채거나 공감하기 어렵다. 심정은 이처럼 상대와의 관계맥락이 전제로 되고, 자신과 관련된 상대의 행동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관여되며, 동시에 자신의 신세에 대한 조망이 상대의 행위에 대한 평가와 결부되어 나타나는 자기 관여적 복합 감정이다. 따라서 제 3자는 물론 심정을 유발한 상대도 자신의 심정을 알아채기 어려우며, 동시에 자신의 심정을 상대나 제 3자에게 전달하는 데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심정의 표현은 심정 내레이션의 형식을 빌어 이루어지며, 심정 내레이션에는 항상 '인간관계', '마음', '행위의 의미', '자신의 신세'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심정적 사고양식과 내레이션 양식은 일반적 사물의 객관적 기술과 관련된 사리적 사고 양식이나 사리적 내레이션 양식과 현격히 구분되고 대비된다(Choi & Kim, 1999a, 1999b).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인의 인간관계는 '정'과 '우리성'을 바탕으로 한 심정을 주축으로 이루어지며, 한국인에게 심정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인의 folk psychology가 '마음'을 핵심으로 구성되고 마음의 관계맺음(inter-mind)이 심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인은 심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동시에 심정을 민감하게 체험한다. 또한 한국인에게는 심정적 사고와 심정적 내레이션 및 담론양식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되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일례로, 올림픽 복싱 경기에서 진 한국선수가 심판들의 판정에 불복하고 링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던 일이 있었다. 이 한국선수는 심판들의 판정 즉 자신이 패한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심판들

이 졌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것이다. 조정래의 대하소설 <한강>에는 '....어쨌거나 그 남자는 자신보다 훨씬 더 억울한 심정일 거라는...' 구절이 나오고, 각종 신문에서는 심정을 표현하거나 나타내는 정치, 문화, 사회면 기사가 거의 매일 등장하고 있다. 또한 금강산을 다녀온 사람의 글(글의 제목이 '심정으로 느낀다'이다)에 장전호에서 내려 처음 북의 땅을 밟을 때 보게 되는 플래카드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한다. '금강산의 관광객을 동포애의 심정으로 환영한다'라는 문구가 써어져 있다(조규미, 1999)고 한다.

한국인의 인간관계적 특성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 그 관계 맺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우리 대 남'의 범주에 대한 구분이다. 대인관계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성' 의식의 형성을 통한 '우리편' 만들기라고 할 수 있다(최상진, 1997a, 1997b, 1999c; 최상진, 박수현, 1990; Choi & Choi, 1994).

한국인의 '우리편'은 서양의 '우리'나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내집단(內集團)'과는 달리 그 밀착성의 정도가 매우 강하다. 한국인의 '우리편'을 사회적 표상수준에서 보면 일심동체 즉 하나됨(oneness), 동체(同體)가 됨(sameness)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편이 있으면 남이 무시하지도 못하며, 남이 피해를 주기도 어려우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며, 외로울 때 의지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즉 우리편이 있으면 구성원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뜻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성(可用性, availability)이 높다는 점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큰 도움의 방편(方便)이 된다(최상진, 1997b).

그러나 우리편의 반대쪽에는 항상 남의 편이 있으며, 남의 편이 존재한다는 가정 위에서 우리편이라는 말도 성립한다. 우리성의 밀착 강도와 이해 결합이 클수록 남의 편은 무시되거나 피해를 받을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에서 소위 집단 이기성 성격의 '배타적 우리성'은 우리성 밖의 타집단 및 그 구성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이 착한 사람인가 아니면 착하지 않은 사람인가의 관찰은 관찰자가 본 상대가 우리편에 속하며, 그 상대가 우리편 구성원으로서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는가, 아니면 우리편 밖의 사람이 자신을 포함한 우리편에 대해 행하는 행동으로 보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인에게 '남'은 우리 밖의 사람, 우리와 다른 사람, 우리와 거리가 있는 사람, 우리와 경쟁 또는 상충되는 사람으로 규정된다. 외국인이 본 한국인 체함에 기초한 한국인 심성판단은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반된 관찰이 될 수도 있다(최상진, 이장주, 1999).

이러한 한국인의 우리편 만들기에 관여되는 우리성 의식은 정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한국인의 일반인 심리학(folk psychology)적 틀 속에서 보면 정은 우리성 형성의 원자재라는 도식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우리의식은 정을 느낄 때 생겨나며, 정은 아껴주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정을 느끼면 상대가 우리로 경험된다(최상진, 1997b). 그러나 정은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쉽게 인식의 대상으로 떠오르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 의 인식은 흔히 우리성 인식의 객관적 가용단서(可用端緒)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함께 고생을 했다거나, 함께 방을 쓰며 살았다거나, 또는 같은 학교나 학급에서 공부했다는 것들은 우리를 함축하는 객관적 가용단서(可用端緒)들로서, 이러한 단서와 정마음의 표현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행이 복합될 때, 그

언행은 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와 같이, 정과 우리성이 서로 결합되는 과정은 양방향적이다. 정 관련 행동이 먼저 나타나고 그 행위를 원자재로 우리성 인식이 나중에 생겨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성 인식이 먼저 되고 정이 그 속에 담겨질 수도 있다. 한국인은 관심 있는 사람을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먼저 고향이나 출신교를 묻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성 인식의 객관적 가용단서(可用端緒)를 찾기 위한 행위이며, 이러한 우리성 단서가 확인되는 순간 한국인은 손쉽게 정을 주고받는 관계로 진입하는 경우를 일상생활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정과 우리성은 서로가 서로의 성격을 규정하는 필수적인 개념이자 단서가 되며, 둘 중 어느 하나가 없을 때 정이나 우리성의 성격은 불투명해진다. 이점에서 정과 우리성은 '역환적이형동체(逆換的異形同體)'라고 규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이 '느껴진 우리성'이라 한다면, 우리성은 '인식된 정'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최상진, 이장주, 1999).

한국인에게 정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맥락을 보면 정이 무엇을 뜻하는 개념이며 현상인가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정이란 말의 동사형 용례로서 가장 보편적인 말이 '정이 든다(들다)'이다. 여기서 든다는 '깃든다(들다)'의 준말로서 '아늑하게 서려들다'로 풀이된다(우리말 큰사전, 1994). 최상진(1997b)은 정이 드는 과정을 '이슬비에 옷 젖듯 잔잔하게 쌓여져서 느껴지는 누적적 감정상태'로 기술한 바 있다. 이는 정이 사랑처럼 강렬하고 급속하게 생기거나 느껴지는 속성의 감정이라기 보다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쌓여져 자신도 모르게 서려드는 감정상태임을 시사한다. 즉 정은 이슬비에 옷 젖는 경우와 같이 '아! 정들었구나'라는 감정과 인식이 탐지되는(retrospective recognition of Cheong) 것이다.

가장 가까운 부부지간에도 정이 드는 것을 깨닫거나, 정이 드는 과정을 스스로 의식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래서 흔히 '살다보니 정이 들었다'는 애매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속에는 왜 또는 어떻게 해서 정이 들었다고 느끼거나 생각되었다는 연유나 상황이 없다. 따라서 조금씩 쌓여진 정에 대한 자의식은 흔히 자신이나 상대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심정을 통해 생겨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어려움에 처한 자신을 보고 상대가 마음 아파하는 것, 즉 상대의 아픈 심정을 읽게 될 때 상대가 자신에게 정을 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된다. 또한 그 역의 과정, 즉 상대가 어려울 때 마음 아파하는 자신의 심정을 스스로 자의식할 때 상대에게 정이 있었음을 스스로 확인하게 된다(김지영, 1999;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1999; Choi, Kim, & Kim, 1999).

따라서 정이 있고 없음의 판단은 정의 마음씀이 있는가 없는가, 또는 깊은가 얕은가의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어떤 행위가 정행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행위 속에 정마음이 얼마나 크게 실려있는가 또는 그 행위가 정마음에서 비롯된 행위인가에 대한 판단이 된다. 우리는 친한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고도 섭섭해한다. 이 같은 섭섭한 마음은 정마음쓰기의 깊이나 무게가 기대보다 낮거나 가벼울 때 생긴다. 또한 선물을 할 때 항상 최고급 상표나 비싼 가격의 물건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동을 보고 외국인들은 이를 과시행동이나 비합리적 행동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이러한 행동 속에는 선물의 가격이나 상표가 정마음 쓰기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생각이 숨어있으며, 정마음의 크기는 자신이 상대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했느냐에 비례한다는 한국인의 정(情) 문화심리와 관계된다.

상가(喪家)에 가면 친할수록 함께 밤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상대를 위한 자기 희생의 정도가 클수록 정마음이 크다는 정 심리논리가 관여되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입 속에 있는 음식물이 묻은 술잔을 그대로 돌려가며 술을 마시는 행위, 한 그릇의 찌개를 놓고 함께 떠먹는 행위 등은 분명 비위생적인 행위임을 한국인이라고 해서 모를 리 없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의 이면에는 불결함이나 비위생도 감수한다는 자기 희생의 표현심리가 묵시적으로 관여되어 있다(최상진, 1997b).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행위를 보고 우리는 '마음을 써준다'는 말로도 표현한다. 어떤 행위가 '어느 정도의 마음이 실려있고' 또는 '어느 정도의 마음을 써주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 그러나 한국인은 행위는 물론 말의 내용과 말하는 방식, 얼굴 표정과 자세 등을 보고, 그것이 진정한 속마음인가 아닌가, 깊은 마음 써주기인가 아닌가, 상대와의 관계에 비추어 넘치는 마음 써주기인가 부족한 마음 써주기인가 등에 대한 '마음 읽기'가 매우 세분화 또는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과 정 마음쓰간의 관계는 심정이라는 말을 통해 조망해 볼 수 있다. 심정은 발동된 마음이며, 발동된 마음은 섭섭한 심정, 야속한 심정, 억울한 심정, 답답한 심정 등 다양한 감정질의 심리상태로 구성되고 느껴지며 표출될 수 있다. 흔히 심정은 '나'라고 하는 자기(自己)가 관여된 인간관계 상황에서 상대의 행동이 자신의 기대와 일탈될 때 생겨나는 마음과 마음의 자각(自覺) 즉 '자각된 자신의 감정(subjectively awared self-emotion, Harre, 1986; 1998 참조)'을 지칭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심정이란 말은 긍정적 맥락보다 부정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심정은 우리성-정관계에서 기대에 못미

치거나 정 미흡(未洽)적 또는 정 배반(背叛)적 행위에서 유발되는 '자기비하감', '자기모멸감'과 관련된 부정적 모순 감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그러한 행위에 대한 해석의 문제와 관련되는데 1차적으로 발생한 부정적 감정 반응은 '곰곰히 생각하는(deliberation)' 자동화되고 습관화된 과정의 기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행위에 대한 해석이 기대 틀과 분리되었거나, 상대의 마음과 의도를 부정하고, 부정적 마음으로 해석될 때 심정이 상하게 된다. 즉 심정은 반성적 사유를 통해 이루어진 자기 관여적 복합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상대의 행동에 대해 1차적으로 발생한 '화(anger)'의 감정이 해석을 통해 반성적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화'의 감정이 될 것이다.

우리성-정관계에 있는 심정당사자들이 심정이 상했을 때 심정곡조로 심정을 토로하게 되는데, 이러한 심정대화의 특성은 심정논리(心情論理)와 심정 narrative 양식에 담겨있다. 심정논리는 이성에 근거한 사리논리와 대비되는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 심정논리와 사리논리

심정논리	사리논리(事理論理)
우리성 논리	개별자 상호작용 논리
사적 논리	공적 논리
마음의 교류 논리	이해관계의 교환논리
간주관성의 논리	객관성의 논리
정의 논리	이성의 논리

심정논리는 '우리끼리'의 논리이고, 사적이고, 간주관적(intersubjective)이고 정의 논리이며 마음의 교류를 중요시한다. 반면에 사리논리는 공적 논리이고 이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적 교환이 이루어지고 객관성을

중요시하는 개개인의 상호작용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정논리로 구성되는 심정대화 양식은 관계성, 마음, 감정이 필수 요소이고 당사자적 감정논리라고 할 수 있으나 사리논리는 관계나 감정이 배제된 이성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최상진, 유승엽, 1996; 최상진, 김기범, 1999c, 1999d).

이를 언행의 측면에서 설명해보면, 공공적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의식하여 행하는 언행을 사리중심적 언행이라 하고, 사적인 관계 상황에서 인간관계를 의식하여 이루어지는 언행을 심정중심적 언행이라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언행과정에서 보통 이 두 가지 차원 또는 형태의 언행을 교차 또는 복합시켜 행한다. 사리중심적 언행에서는 사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마음 써주기식 언행이 합리성과 공공적 타당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되도록 억제되거나 위장된다. 반면 심정언행에서는 공공관계에서 나타나는 합리적 언행이 마음 써주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억제된다. 따라서 전자의 담론 형태를 공공논리적 담론이라 한다면, 후자는 심정논리적 담론이라고 볼 수 있다(최상진, 1997b; 최상진, 김기범, 1999c; 최상진, 유승엽, 1996).

이러한 심정 담론의 형태는 심정곡조를 띤 심정도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심정도로는 예를 들면 "네가 나한테 그럴수 있어!", "지가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너하고 나하고 이럴 처지냐?", "니가 내 생각 조금만 했더라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심정 당사자의 곡조 띤 화두(talk)로 시작된다(Choi & Kim, 1999a, 1999b).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성-정관계에 있는 심정당사자들의 상대에 대한 기대와 믿음에 못미치는 언행을 함으로써 자신을 대상으로 하여 조망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치 즉 신체에 대한 한탄을 타령의 곡조로 토로하는 것이다. 이러한

심정토로는 슬 좌석과 같은 자리에서 정을 전제로 한 자기 마음의 토로이다. 다음의 예는 심정 담론의 한 양식이라 할 수 있다(최상진, 김기범, 1999c; Choi & Kim, 1999a).

사람 A: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사람 B: "미안해, 그럴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야"

사람 A: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너하고 나하고 어떤 사이냐"

사람 B: "그게 진심이 아니라면 걸 너도 잘 알잖아, 너도 내 마음 잘 알잖니"

위의 담론 양식은 우리성-정관계에 있는 심정 당사자간의 어떤 사건(event)이 계기가 되어 상대방의 기대에 못미치거나 미흡한 언행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한 형태이다. 상대방의 언행에 대한 감정은 반성적 사유를 통해 관계속에서의 자신을 대상화하여 자신의 신세를 조망한 후 상대방에게 신세한탄 및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다.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본 마음이나 그럴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하고 당사자들간의 관계를 거론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길 바라고 미안해하는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

한국인들은 대인관계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보고와 한국인에게 독특한 화병(火病, Hwa-Byung; DSM IV에 한국인의 문화적 증후군으로 소개됨)의 심리적 기제가 '억울(抑鬱)'이라는 심정으로 구성된다는 연구보고(최상진, 이요행, 1995), 이밖에 한국의 상담자들이 호소하는 심리적 문제의 주종이 심정을 기저로 한 문제(박외숙, 1996; 오영희, 1995; 윤호균, 1995; 이광준, 1996; 이장호, 1995; 이장호, 금명자, 1991 참조)란 점등을 감안할 때 심정

은 적극적 의미의 정신건강은 물론 정신적, 성격적 장애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관여되는 개념이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정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 문제 즉 성격적 부적응, 정신장애, 대인갈등 등이 그 문화권에 구성된 심리적 구성 개념과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적이며 매개적인 심리과정 및 현상과 밀접히 관련된다는 점(Draguns, 1996; Gergen, 1994; 1985; Hofstede, 1980; Leontiev, 1981; Pedersen, Draguns, Lonner, & Trimble, 1996; Reynolds, 1987; 1980; Ridley & Lingle, 1996; Wertsch, 1985 참조)을 고려할 때 심정의 개념은 한국인의 정신병인학(aetiology), 진단(diagnosis) 및 치료(therapy)에 중요한 한 영역의 개념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정의 개념은 한국에서의 정신 건강 및 치료 관련 직업 현장에 아직 도입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인의 self와 심정

현대적 의미의 서구적 상담은 20세기에 생겨난 서구의 개인주의에 바탕한 '원자론적-자동기계 관점적 개인관(bounded, independent, autonomous, agentive self)'에 기초하여 구성된 정신건강 전문지식이며 서비스활동이다. 이러한 원자론적-자동기계 관점적 개인관의 구성에서 핵심적 주체는 self로서 서구 문화에서 구성한 self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self는 개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자기실체로서 자신의 성격, 정서, 행동, 의지 등과 같은 심리적 제 현상에 광범위하고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Danziger, 1997). 둘째, 개인의 self는 개인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그 구조 속에 내재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self

는 당사자인 나 자신이 이성의 인식을 통해 찾아 내고 논리의 언어로 체계화해야 한다(Harre & Gillett, 1994). 넷째, self는 자신의 일상적 삶 과정에서 참고(reference)의 준거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self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서구에서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사회에서 나 자신의 self를 구축하도록 요구하며, 일상의 대화나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과정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빈번하게 하게 된다(Giddens, 1991).

이와 같은 서구인의 self 개념 속에는 다음과 같은 서구 문화적 기본 전제(truism)가 깔려 있다. 첫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self도 물질(entity)의 성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성적 인식과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self는 마음과 행동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agentivity를 갖는다. 셋째, self는 사람의 얼굴이 고유한 것처럼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개인 자체가 자기 삶의 주체가 된다. 넷째, self는 마음이 발동과 행동의 발현에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 선택하는 주체가 되며, self의 선택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다. 즉 오늘날 서구의 문화적 가치인 물질주의, 합리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서구의 self이며(Bruner, 1990), 이를 역으로 해석해 보면 서구인이 이와 같은 self를 구성했기 때문에 서구의 문화적 사상이 합리화 내지 정당화 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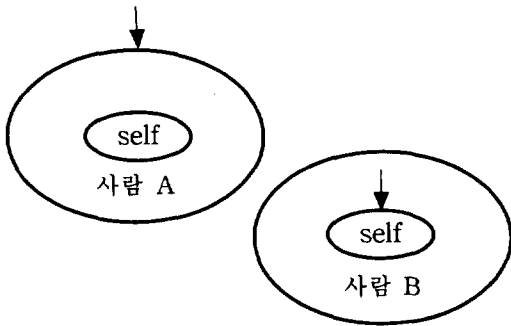
이러한 서구의 self와는 달리 한국인의 self는 자기에게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황 맥락적으로 자신에 위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실재를 구성하는 '관계적-상황맥락적 self'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최상진, 김기범, 1999b).

한국 대학생들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친한 친구들은 당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했을 때 나타난 응답의 성격을 분석해보면 주로 인간관계적 측면에서의 자기의 특성과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성격의 응답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는 한국인에게 있어 self는 곧 '자기 마음의 성향'을 종합적으로 추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에게 self는 고정적, 안정적, 초월적(transcendental) 물체성(entity)을 갖는 self 라기 보다는 가변적, 불안정적, 상황맥락적 마음성(mind-self)을 강하게 반영한다(최상진, 김기범, 1999a). 필자들은 이러한 서구인과 한국인의 self 개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서구의 self를 referential entity-self로 한국인의 inferential mind-self로 명명하고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대비하고 이를 도식으로 나타낸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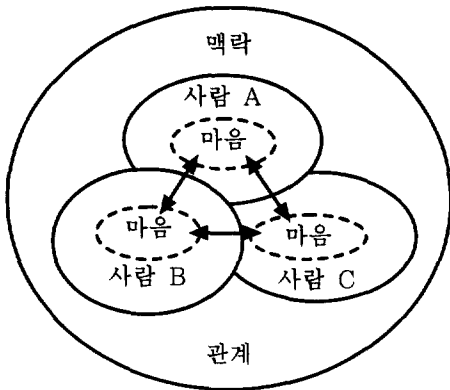
표 2. 서구인의 Referential Entity-Self와 한국인의 Inferential Mind-Self의 특징

Referential Entity-Self	Inferential Mind-Self
본체적(substantive)	상태적(static)
존재적(ontological)	성향적(dispositional)
구조적(structured)	비구조적(non-structured)
실체적(real)	심리적(psychological)
참조적(referential)	형태구성적(configurational)
초월적(transcendental)	맥락적(contextual)

표2와 그림1에서 나타난 한국인 자기의 특징은 사람간의 관계, 마음, 맥락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마음, 맥락 속에서 자기 적용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며, 이러한 적용을 위해서는 상대의 속마음을 읽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만일 상대 자신이 자기가 원하는 생각이나 기대를 당사자에게 분명하게 말해 줄 때 상대



[서구인의 self]



[한국인의 마음-자기]

그림 1. 서구인의 self와 한국인의 관계와 맥락 속의 자기

의 속마음(심정)을 읽는 일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아주 절친한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분명히 전달하기 보다 상대가 미리 알아채어 자신의 속마음에 맞는 행동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바로 이런 사람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다. 따라서 자신의 속마음을 상대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 자체가 묵시적으로 상대를 믿지 않거나 가깝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언행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기 속마음을 상대에게 드러내놓지 않는다(최상진, 1997b; 최상진, 김기범, 1999d; Choi & Kim, 1999a).

드러내놓지 않는 속마음을 읽는 일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잘못 읽게 되는 추론의 오류를 범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 사람들은 오해(誤解, misunderstanding)와 곡해(曲解, misunderstanding of intentionality and information)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심정의 문제 즉 상대의 심정을 상하게 하거나 자신의 심정이 상대에 의해 상처받는 문제가 중요하고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한국인의 속마음 읽기의 오해, 곡해와 밀접히 관련된다.

한국인의 심정상담 및 심정치료의 모색

한국인의 일상언어 속에 서구의 상담(相談)에 해당되는 말이 없으나 상담과 유사한 형태의 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상담에 가장 가까운 활동은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여 고민을 푸는 상의(相議), 자신의 심정문제를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하여 상처받은 심정을 해소하는 심정토로 등과 같은 것이다. 물론 고민 상의나 심정토로와 같은 활동과 관련하여 서구적 의미의 상담과 같은 제도화된 규칙이나 원칙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 중 하나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거나 그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를 토로한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가까운 사람을 상담의 대상으로 삼는 데는 가까운 사람이 상담에 대해 전문가적 능력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갖추었기 때문이기보다는 자신의 마음 즉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데 그 동인(動因)이 있다. 또한 자신이 상담을 통해서 얻거나 기대하고 있는 도움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대한 도움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맺혀있는 자신의 심정을 상대가 이해, 공감해 줌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이나 가치를 인정받고 동시에 정서적 지원을 받는데 있다. 세 번째는 고민이나 문제된 사안의

성격이 대인관계에서 비롯된 심정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심정적 담론이 가능한 상대로서 가까운 사람이 적합하다는 판단과 관계된다.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대한 한국학자들의 공통된 생각의 하나는 한국의 문화를 '푸는 문화'로 규정짓는다. 푸는 문화로 규정되는 데는 맺힘이 있음을 함축한다. 한국말에서 보통 맺힌다는 말은 '마음에 맺힌다'는 의미를 함축하거나 전제한다.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 중의 하나로 한(限)이 꼽히고 있다. 한은 심정에 속하는 특정한 형태의 부정적 감정으로 '해결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부당한 피해를 자신의 무능으로 인해 남으로부터 받게 될 때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감정과 심정의 경험질'이다. 이러한 한의 심정속에는 가해자에 대한 원망과 무능에서 비롯된 자신의 피해에 대한 자책의 복합적 감정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한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고통은 직접적으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시키는 일차적 통제보다는 마음속에 맺힌 한을 상담을 통해서 푸는 이차적 통제 방식에 의해 완화하거나 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한을 푼다'라고 말한다(최상진, 1991; 1997b).

한국인들은 상처받은 심정을 해결한다는 말보다 푼다는 말을 일반적으로 한다. 심정을 푸는 방식은 심정을 상해한 당사자에게 자신의 심정을 직접 토로하거나, 자신의 심정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가까운 제 3자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과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는 방식이 있다. 어떠한 경우나 심정의 토로는 가해한 상대에 대한 적대감이나 징벌에 목적이 있기 보다는 가해자의 화해를 통한 우리성관계의 회복하기 위한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심정의 토로 과정을 보면 먼저 '너와 내가 얼마나 가까웠냐'에 대한 확인적 말로 시작하여 자신의 마음속

에서 일어난 감정을 최고의 형태로 표현하고 상대의 이에 대한 공감을 소고한다. 이때 표현된 회고적 자기 감정은 적어도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진실(truthful)하고 진정한(authentic) 것'으로 한국문화권에서는 구성하고 있다. 이를 필자들은 심정진실-진정관으로 명명한 바 있다(최상진, 유승엽, 1996).

상대가 자신의 심정과 관련된 감정을 진실하고 진정하게 받아들였다는 전제가 가능할 때, 왜 자신의 심정이 상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은 상대방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공감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다' 라던가, '그러한 뜻이 아니었다' 등과 같은 새로운 의미부여나 해석의 근거를 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호소한다. 만일 이 상황에서 심정토로자가 이러한 상대방의 말을 수긍하고 수용할 때 두 사람간에는 화해가 일어나고 본래의 우리성관계 회복에 가깝게 접근하게 된다. 심정의 토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한 형태의 담론양식을 갖는다. 일반적 형태로 표현하면 가까운 우리편 사람과의 사적이며 인간적인 담론 양식이다. 즉 공적인 상황에서의 사리담론과는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심정담론은 이러한 담론의 형태가 적합한 상황속에서, 적합한 도입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술좌석이 대표로 꼽힌다. 한국의 집단내 갈등이나 노사대치 상황에서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대화의 장소로 흔히 술집이 꼽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어떤 상황에서 심정담론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문화적 규칙이 있다. 다음으로 도입과정에서는 상대와 싸울 의사가 없다는 것을 함축하는 우리성관계 확인의 의식화된(ritualistic)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예컨대, "나도 너를 잃는 것이 몹시 마음 아프다"느니 또는 "어쩌다가 너와

내가 이렇게 서먹해지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다”
느니와 같은 화해의 의도를 함축하는 말로써 심
정의 토로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정의 토로 본문에
서는 마음의 문제가 중요한 해결해야 할 문제의
원자료(raw material)가 된다. 왜냐하면 한국인
들은 모든 행동을 그 자체로 평가하기보다는 마
음의 표현형으로 행동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
처럼 마음의 문제가 토로와 담론의 주제가 되는
한 오해나 고통을 푸는 일은 상당한 융통성을 갖
게 된다. 행동 자체가 문제가 될 때 그 행동은
명백한, 변화시킬 수 없는 증거로써 어떠한 제해
석도 불가능하나 마음의 문제는 그 형태성과 증
거성이 약해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도 의미의 부
여 방식과 해석의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귀결지
을 수 있다.

심정상담이나 치료가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
이 될 수 있는 배경 속에는 마음의 문제에 초점
을 둔 치료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심정의
문제는 자신의 심정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
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
다. 따라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심정으로 그 자
체로도 문제된 심정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심정의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과 심정담론을 통해
화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도식화해보면 그림 2,
3과 같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성-정관계에 있
는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의 사건의행위는 상대
방의 기대에 상반되거나 미흡한 결과를 낳아 불
유쾌한 1차적 감정을 갖게 된다. 부정적인 1차적
감정 즉 불유쾌한 감정은 자신을 대상화하여 자
신의 신세를 조망함으로써 자기비하감이나 자기
모멸감을 갖게 되어 심정이 상하게 되는 2차적
감정이 유발되는 것이다.

상한 심정은 담론의 과정을 통해 풀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 그림 3이다. 우리
성-정관계에 있는 사람 중 어느 하나가 심정이
상하게 되어 그림 2의 과정으로 심정이 발동하게
되면 상대방의 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는 두 사람간의 심정자장을 통해 전달되고 심정
이 상한 사람의 토로를 통해 직접적으로 전달된
다. 심정을 상하게 한 사건행위 당사자는 상대방
의 심정토로를 듣게 되고 심정을 공감하게 됨으
로써 상대방에 대한 오해나 고통을 풀게 된다.
즉 상한 심정을 풀게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모델 위에서 심정 상담자나 심
정치료자가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
다. 하나는 상처받은 심정이 어떤 것이며 그러한
심정이 어떤 사람과 어떤 사건 과정을 통해서 일
어나게 되었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일이다.
이러한 분석의 토대 위에서 치료 개입의 과정과
방법이 고안되면 다음과정으로 심정담론의 양식
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치료개입과정에 도
입하는 일이다. 이때 심정담론은 정신분석에서와
같이 내담자의 이야기를 치료자가 일방적으로 듣
고 이를 기초로 치료자는 정신분석학적 해석을
하는 일방적 형태의 의사소통이 아니라 양방적으
로 서로 대화를 주고 받는 일상의 대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심정담론이 자연스러운
삶의 현장 형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우리성-정관계의 가까운 사람으로 느
껴져야 한다.

심정치료는 내담자의 속마음을 대화의 과정에
서 부단히 파악하고 공감해주는 과정이 중요하다
는 점에서 Rogers의 내담자 중심적 치료와 상당
한 유사성을 갖는다. 그러나 심정치료에서는
Rogers의 치료자처럼 내담자의 자기 토로에 대
해 공감하는 반응적 차원을 넘어 새로운 시각에
서 문제를 재조망하고 재해석하는 적극적 개입이
관여된다는 점에서 치료자의 개입관여도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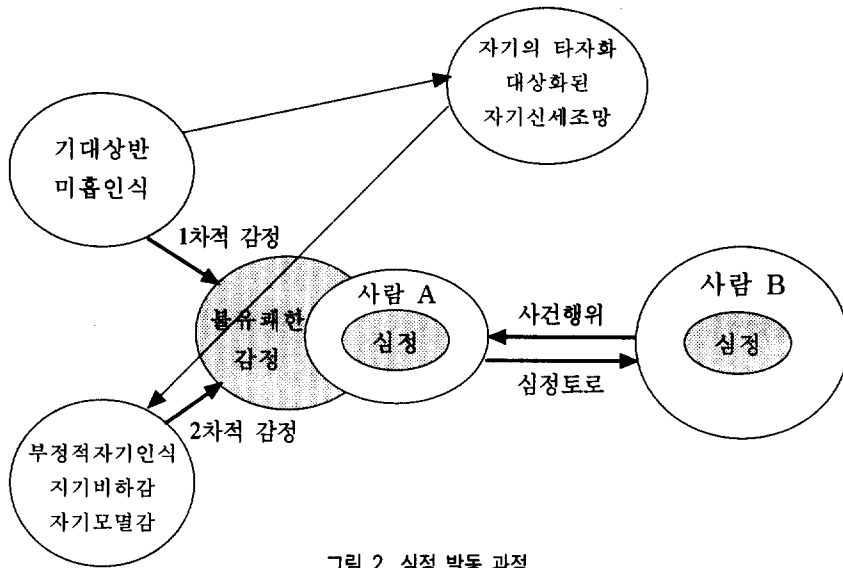


그림 2. 심정 발동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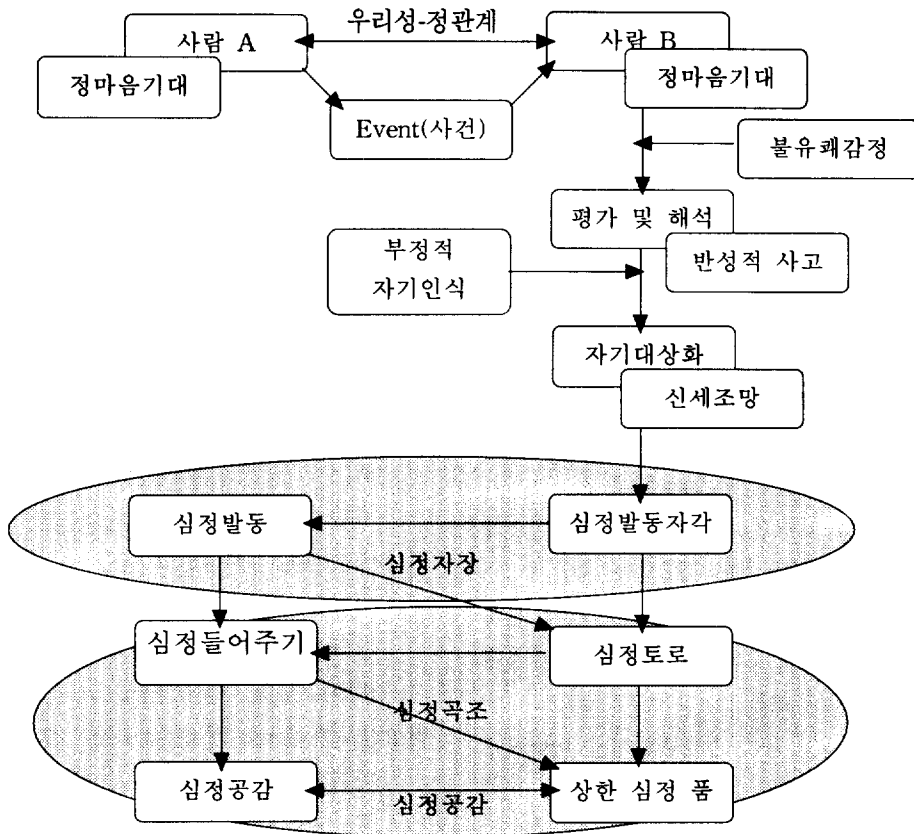


그림 3. 심정 담은 과정

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심정치료에서는 담론을 통한 새로운 현실을 공구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따라서 담론과정 자체가 치료의 매개적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심정상담과 심정치료는 문제된심정을 심정 담론을 통해 재구성하는 공구성적인 한국형 심리치료의 한 가지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들을 위한 심정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탐색의 일환으로 심정치료 및 상담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한국인들의 우리성·정 인간관계에서 발달한 심정심리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심정담론의 발달과 심정교류양식의 과정이 상담 및 치료 과정에 도입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는 필자들의 그 동안의 연구와 경험을 통해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여러 접근법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심정상담이나 심정치료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고 명료화시키는 과정이 요구되어진다.

참 고 문 헌

- 금장태(1998). 퇴계의 삶과 철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의철, 박영신(1997).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적응 결과: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96-126
- 김지영(1999). 정의 구조, 행위, 기능간의 관계성 탐색: 미운정 고운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외숙(1996). 다문화적 상담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에 대한 검토. 한국심리학회 동계연구세미나집, 135-164.
- 윤호균(1995). 정신분석, 인간중심의 상담 및 불교의 비교: 인간 및 심리적 문제와 그 해결. 임능빈 편저(1995), 동양사상과 심리학 (pp. 469-516). 서울: 성원사.
- 윤호균(1995). 정신치료와 수도-정신분석과 선을 중심으로. 임능빈 편저(1995), 동양사상과 심리학 (pp. 517-534). 서울: 성원사.
- 오영희(1995). 용서를 통한 한의 치유: 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7(1), 70-94.
- 이광준(1996). 한국적 치료심리학. 서울: 행림출판.
- 이장호(1995). 상담의 동양적 접근. 상담심리학회 3판. 서울: 박영사.
- 이장호, 금명자(1991). 우리 나라 대학생의 상담에 대한 기대.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연구, 26(1), 1-18.
- 조구미(1999). 금강기획 사보<다이아몬드 애드>. 1999년 1월 2일.
- 최상진(1991). '한'의 사회심리학적 개념화 시도.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339-350.
- 최상진(1997a). 당사자 심리학과 제3자 심리학: 인간관계 조망의 두 가지 틀.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엄 발표논문집, 131-143.
- 최상진(1997b). 한국인의 심리특성. 한국심리학회(편), 현대심리학의 이해(pp. 695-766). 서울: 학문사.
- 최상진(1999c). 한국인의 마음. 최상진, 윤호균, 한덕웅, 조공호, 이수원(공저). 동양심리학: 서구심리학에 대한 대안 모색(pp. 377-479). 서울: 지식산업사.
- 최상진, Susumu Yamaguchi, 김기범(1998). 사회정의와 집단성의 갈등상황에서의 문화적 차이.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547-557.

- 최상진, 김기범(1999b). 한국인의 self의 특성: 서구의 self 개념과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75-292.
- 최상진, 김기범(1999c). 한국인의 심정심리: 심정의 성격, 발생과정, 교류양식 및 형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8(인쇄중).
- 최상진, 김기범(1999d). 한국문화적 심리치료 접근으로서의 심정치료.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 최상진, 김정운(1998). "Shim-cheong" psychology as a cultural psychological approach to collective meaning construction.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2), 79-96.
-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1999). 미운정 고운정의 심리적 구조, 표현행위 및 기능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연차학술발표대회.
- 최상진, 박수현(1990). '우리성'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69-78.
- 최상진, 유승엽(1996). 심정심리학의 개념적 틀 탐색.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377-388.
- 최상진, 이요행(1995). 한국인 화병의 심리학적 개념화 시도.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327-338.
- 최상진, 이장주(1999). 정 의 심리적 구조와 사회-문화적 기능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219-233.
- 최상진, 최인재, 김기범 (1999). 정, 체면민감성과 스트레스, 문제대응방식간의 관계.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 최봉영(1997). 조선시대의 유교문화. 서울: 사계절.
- 최석만(1998). 사회윤리로서의 합리주의와 유교의 비교. 동양사상학회지, 1, 133-160.
- 홍승표(1998). 동아시아 사회사상과 새로운 사회관의 모색. 동양사상학회지, 1, 105-132.
- Bruner, J.(1990). *Acts of mean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hoi, S. C.(1998). The third-person- psychology and the first-person psychology: Two perspectives on human relations.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25, 239-264.
- Choi, S. C., & Choi, S-H.(1994). We-ness: A Korean discourse of collectivism. In G. Yoon, & S. C. Choi(Eds.), *Psychology of the Korean people: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pp. 57-84). Seoul: Dong-A Publishing & Printing Co., Ltd.
- Choi, S. C., & Kim, J-Y, & Kim, K.(1999). Sweet Cheong and hateful Cheong.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ugust 4-7, Taipei, Taiwan.*
- Choi, S. C., & Kim, K.(1999a). The ShimCheong(心情) therapy for Koreans: A formulation of an indigenous cultural approach. *Paper presented at the 2nd World Congress of the World Council for Psychotherapy, Vienna, July 4-8, Austria.*
- Choi, S. C., & Kim, K.(1999b). Shimcheong: The key concept for

- understanding Koreans' mind.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ugust 4-7, Taipei, Taiwan.*
- Danziger, K.(1997). *Naming the mind: How psychology found its language.* London: Sage.
- Draguns, J. G.(1996). Humanly universal and culturally distinctive: Charting the course of cultural counseling. In B. P., Pedersen, J. G., Draguns, W. J., Lonner., & J. E., Trimble (Eds.), *Counseling across cultures* (pp. 1-20). Thousand Oaks, CA: Sage.
- Gergen, K. J.(1985). The social constructionist movement in modern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40(3), 266-275.*
- Gergen, K. J.(1994). *Realities and relationships: Soundings in social construc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iddens, A.(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rre, R.(1986). An outline of the social construction viewpoint. In R. Harre (Ed.), *The social construction of emotions* (pp. 3-14). Basil Blackwell.
- Harre, R.(1998). Emotion across cultures. *Innovation, 11(1), 43-52.*
- Harre, R., & Gillett, G.(1994). *The discursive mind.* London: Sage.
- Hofstede, S.(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Leontiev, A. N.(1981). The problem of activity in psychology. In J. V. Wertsch (Ed.), *The concept of activity in Soviet psychology* (pp. 37-71). NY: Sharpe.
- Pedersen, B. P., Draguns, J. G., Lonner, W. J., & Trimble, J. E.(1996). *Counseling across cultures.* Thousand Oaks, CA: Sage.
- Reynolds, D. K.(1980). *The quiet therapies: Japanese pathways to personal growth.*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Reynolds, D. K.(1987). Japanese models of psychotherapy. In E. Norbeck, & M. Lock (Eds.) *Health, illness, and medical care in Japan* (pp. 110-129).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Ridley, C. R., & Lingle, D. W.(1996). Cultural empathy in multicultural counseling: A multidimensional process model. In B. P., Pedersen, J. G., Draguns, W. J., Lonner., & J. E., Trimble(Eds.), *Counseling across cultures* (pp. 21-46). Thousand Oaks, CA: Sage.
- Wertsch, J.(1985). *Vygotsky and the social formation of mind.* CA: Harvard University Press.

The Shimcheong(心情) Therapy for Koreans: A Formulation of An Indigenous Cultural Approach

Sang-Chin Choi Ki-Bum Kim

Chungang University

The present authors try to build a model for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hich are efficient for Korean people and suitable for Korean culture. Thus, this is a formulation of an Korean indigenous cultural approach. The theoretical model suggested by the present authors suggests that Shimcheong counselors and therapists are given two major types of assignment. One is to conduct in-depth analyses of the kinds of damaged Shimcheong as well as others and events related to this Shimcheong. Given these analyses, therapeutic interventions and processes are designed. Then, it is required to establish concretely modes of Shimcheong-based discourses and to introduce them to the therapeutic processes. At this point, Shimcheong-discourses should be bidirectional in terms of reciprocal communication, unlike psychoanalysis in which the therapist listen to the client and make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s of this client. These Shimcheong-discourses can occur in natural everyday settings when therapists and clients feel each other in the weness and Cheong-relationship.